

CJ '도너스 캠프'

풀무원 '프로젝트 WET'

스타벅스 '창업카페'

"네 꿈을 펼쳐라" 이것이 지속가능 사회공헌

단순한 기부활동에서 벗어나
환경·창업·직업체험·문화 등
장기적 사회이슈 기여에 중점

최근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요
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통·식품업계도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
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사
회공헌 측면에서도 기부금을 전달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
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실
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인식 개선
교육, 진로 멘토링, 예술 다양성 후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네슬레 워터스와 풀무원
의 합작회사인 풀무원샘물이 지난 2009
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물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WET'이 있다. 사단법인 환경
교육센터와 함께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
센터를 대상으로 '풀무원샘물과 함께하
는 찾아가는 물 환경 교실'과 물 교육 지



풀무원샘물의 물 교육 프로젝트 WET

/풀무원샘물



스타벅스카페의 창업카페 프로그램

/스타벅스카페

도자를 양성하는 '프로젝트 WET 강사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7년 동안 635회에 걸쳐 총 15,754명
의 초등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수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전파
했다. 특히 '찾아가는 물 환경 교실'은 지난
2015년 환경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을 정도로 양질의 교육 수
준을 제공한다. 올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에도 풀무원샘물 이동공장이 위치한
포천시 내 포천노곡초등학교에서 초등학
생 3~4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실험과 놀이
활동 등 재미있고 창의적인 커리큘럼으
로 구성된 물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멘토링을 제공
하고 차세대 인재 양성에 힘쓰는 프로그
램도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창업
카페'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매장에서
스타트업 유명인사 특강 및 멘토링을 제
공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3년 동안
창업카페 프로그램을 서울창조경제혁신
센터와 운영하며 서울과 대전, 대구 등 대
학가 주변의 스타벅스 11개 매장에서 110
회에 걸친 강의 모임을 주최했다. 이를
통해 1840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참
석해 선배 창업가의 세미나 강연을 들으
면서 정보와 인적 교류의 기회를 얻었다.

스타벅스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청년
창업을 위한 교류의 확산과 아이디어 유
입 창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며 지
속적으로 창업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 노
력해 나갈 예정이다.

CJ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CJ 도너스캠프
창의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패션, 음
악, 영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학생들에게
멘토링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
으며, 작년까지 450여명의 학생들이 창의
학교에 참여했다. 올해는 음악·영화·디
자인 등 3개 부문으로 창의학교 상반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해당 분야의 전공
자들로 구성된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
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5개 공부방
을 찾아 매주 2.5시간의 교육을 진행했
다. ▲음악부문은 창작곡 만들기와 공연
기획을 통해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표현하고 ▲영화부문은 시나리오 창작부
터 연출·연기·촬영 등을 모두 직접 하며
영화를 제작하고 ▲디자인부문은 집과
마을을 디자인하고 이를 연결해 도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공동체
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예술계 다양성을 권장하며 국내 예
술 창작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업들도 있
다. 동서식품은 1989년부터 국내 최대 여
성 신인문학상으로 자리 잡은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을 개최하고 있으며, 멘토링
클래스, 멘토 작가와 여행을 떠나는 문학
기행 등도 실시하며 여성 문학인을 지원하
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당신의 삶도 문학
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멘토링 클래스에는 예비작가 총 300
여명과 함께 권여선 작가, 나희덕·강희진
시인, 황선미 작가, 김홍신 작가(동서문학
상 운영위원장) 등이 초청작가로 참가했
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CJ 신현재 사장, 글로벌 인재 찾아 '미국行'

경영진들과 글로벌 채용 활동 진행
20여 명 박사급 R&D 인력 뽑을 듯

CJ제일제당이 바이오·식품 분야 글로
벌 우수 연구개발(R&D) 인재 확보를 위
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
까지 신현재 대표이사, 강신호 식품사업부
문대표를 비롯해 임원급 경영진 8명이 참
석한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인재 채용 활
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명 안팎의 박
사급 R&D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신현재 대표이사는 노향덕 R&D 기획
실장, 은종수 바이오 연구소장 등과 함께

지난 8월 1일부터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
교에서 열린 '한미학술대회 2018'에 참석
해 현지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박사급 인재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진행했다. 이틀간 2회에 걸쳐 진행한 면
접과 함께, 채용 후보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자
유로운 형식의 인터뷰도 병행했다.

이에 앞서 강신호 식품사업부문대표도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미국 시카고에
서 글로벌 채용활동에 나섰다. 강 대표는
정우경 식품연구소장과 함께 식품 R&D
분야 인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
했다. 식품 분야 채용 후보자들은 살균,
발효 등 식품제조 관련 기초 기술을 비
롯, 품종 개발과 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주제로 면접에
참가했다. 아울러, 시카고에서의 개별 면
접과 동시에 현지 대학의 협조를 얻어 추
가 채용 활동도 병행했다.

대표이사가 직접 글로벌 인력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초격차 R&D 경쟁
력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판단에서
다. 국내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
업으로 키우고 나아가 한국 식문화의 글
로벌 확산을 위해 첨단 기술 경쟁력이 반
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로벌 채
용에서 현상유지가 아니라 연구개발 영
역 확대와 신규사업 분야 인재 영입에 초
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채용된 인재들은 올 하반기 중으로 바
이오 및 식품 분야 국내외 연구소와 사업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이사(가운데)가 한미학술대회에 참석한 재미 과학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CJ제일제당

장애 배치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맡게 된다.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이번
글로벌 채용을 통해 회사의 5년, 10년 후 미
래 성장을 이끌 우수한 인재들을 직접 만나

CJ인(人)으로 맞이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
련했다"며 "CJ제일제당이 최고 수준의 R&
D 경쟁력을 갖추고 인재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
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알바생 10명 중 7명 "워라밸은 그림의 떡"

75% "정시퇴근 못하고 연장근무"

최근 직장인들의 워라밸(Work and L
ife Balance)이 강조되면서 정시 퇴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간당 급
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상은 연장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등 알바
생 워라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는 알바 근로자 335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75.0%는 '아르바이트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연장근무를 했다는 알바의
근무지 운영형태별로 보면 '자영업 매장'
(78.4%)의 연장근무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이어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매장'
(76.4%), '과견·도급·아웃소싱'
(76.1%), '프랜차이즈 가맹점'
(73.1%), '기업 본사'(71.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생산·건설·현장직' 알바
생의 경우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92.5%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호프·일반
주점'(88.5%), '놀이공원·테마파크'
(83.3%), '영화·공연장'(81.1%), '호텔·리
조트·숙박'(80.9%) 순이었다.

반면, '백화점·면세점'(62.3%), '편의
점'(62.9%), '학원·교육기관'(63.5%) 등에
서 일했던 알바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
로 타 업종에 비해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이 남
아 있거나, 업장이 바빠서 자발적으로 했다'
(51.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장님의 연장
근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30.2%)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외에 '함께 일
하는 알바 동료의 부탁으로'(6.2%), '늦은부
터 일을 하는 조건에 연장근무도 포함돼 있
어서'(5.2%) 등의 이유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몰캉스족 체류시간 늘고… 에어컨·양산 판매 '신기록'

〈쇼핑몰+바캉스〉

폭염이 만든 유통가 풍경

롯데월드몰 日 방문 21만명 돌파

7월 쇼핑몰 체류시간 평균 1.5배

기상관측 아래 역대 최고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유통가에서 이색 기록이 쏟아
져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잠실의 롯데월
드몰은 이달 들어 주중 하루 최대 방문객
기록을 세웠다.

지난 1일 롯데월드몰을 찾은 사람은 20
만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다음
날인 2일에 21만명으로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 올해 상반기 주중 하루 평균 방
문객이 11만명인 것에 비하면 그 두배에
달하는 인원이 이 곳을 찾은 것이다.

고객들이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잡화
매장에서 양산을 고르고 있다.

하려는 '백캉스' (백화점+바캉스)족이 늘
면서 고객 체류시간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주차장의 입·출차 시간으로 고객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체류시간
이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기존에
는 고객 체류시간이 2시간 정도지만, 7월
은 평균 3시간 30분이었다.

롯데백화점의 7월 우·양산 매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9.1%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현대백화점에서는 7월 에어컨 판매가
연중 최대 기록을 세웠다.

통상적으로 에어컨의 1년 중 최대 매출
은 여름을 앞둔 5월에 기록하고, 7월 매출
은 5월의 70% 수준이다. 그러나 올 7월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 5월의 120% 수
준으로 팔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